

4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87





하나 된 군민의 목소리가 이루어낸 '플라이 강원'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COVER STORY



봄날 걷기 좋은 남대천 둔치길



양양소식 · 287호

| 발행일 2019년 3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87

CONTENTS

의기양양

4 뉴스 브리핑

4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6 양양군 양양읍 시가지 도심 환경이 크게 바뀐다.

8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양군, 무단 점유건축물 철거 행정 대집행 실시

9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희망양양

12 기획취재 귀농·귀촌의 최적지, 양양에서 살립니다.

14 ISSUE & PEOPLE

마을지킴이, 여성 이장 트리오를 만나다.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4월 4일 양양장날 만세운동과 함흥기 열사

오감양양

18 SNS 속 양양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양양의 체험마을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서면 용천리

22 맛있는 양양여행

‘새우인 듯 새우 아닌 새우 같은 ‘부새우’

열린양양

24 책이야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 이달의 신간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

하나 된 군민의 목소리가 이루어낸 '플라이 강원'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마침내 국제 항공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빠르면 오는 10월(연내)취항하게 됐다.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은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양양군의 공조가 맞물려 이뤄냈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6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을 유치한데 이어 2017년 두 번의 반려 후 운영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소비자 편익 부족, 충분한 항공수요 불확실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등을 보완해 지난해 세 번째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우리군은 강원도, 플라이강원과 공조체제를 강화한 후 청와대·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

달했으며, 지원계획 제출 등을 통해 신뢰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600여명의 군민들은 면허발급 촉구 집회를 개최하며 플라이강원 면허취득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4월에는 '플라이양양'의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했고,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 TF팀을 운영하며 지원에 속도를 냈다.

특히, 올해 세 번째 심사를 앞두고는 플라이강원의 조속한 면허 발급을 위해 유치대책위원회와 도내 관광협회·경제연합회·상공회의소가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면허승인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드디어 국토교통부는 첫 면허 신청 일로 부터 2년 3개월만인 지난 3월 6일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승인했다.

양양국제공항 날개 달아, 국내선 3곳 □ 국제선 28곳 취항 계획

2016년 4월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항공사로 관광과 항공을 융합한 항공운송사업을 주력한다. 기존 국내 8개 항공사가 모두 주 고객이 내국인이었다면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공급 좌석의 80%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중점으로 항공사업 운영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의 도입항공기는 총 10대로 10대 전부 양양국제공항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국내선 김포·울산·광주 3곳을 우선 취항한 후 12월부터 국제선 28개 도시

플라이강원 취항 노선



를 연차적으로 왕복 취항할 계획이다.

(*국제선 ▲베트남 하노이·다낭·호치민·하이퐁 ▲대만 타이페이·가오슝·타이중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필리핀 클라크필드·세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캄보디아 씨엠립 ▲마카오 ▲중국 광저우·상하이·선양·하이커우·산야·웨이하이·나트랑·칼리보·엔타이·지난 ▲일본 나리타·오사카·나고야·히로시마)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4개국에 강원도 국외본부 플라이강원 모객전초 기지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18개 해외지사 등 홍보 및 여행사 네

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의 정기운수권 확보와 동북·동남아 지역 항공자유화 지역의 정기노선 개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 상하이·광저우·선양에만 한정된 정기운수권 설정을 향후 베이징, 난창, 난징, 창사, 우한, 정저우, 충칭, 텐진, 타이위안, 허페이, 창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설악산~금강산(백두산) 국제관광지대 연계 동해공동관광 특구 조성 시 양양공항~갈마공항, 양양공항~삼지연공항 간 하늘 길을 개설해 플라이강원이 남북인적교류 등의 운송수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면허발급에 발맞춰 관광산업화 및 인프라 확충에 총력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기대

플라이강원이 본격 운항하면 양양국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 수 올해 4만5천명, 2020년 55만명, 2021년 84만명, 2022년 102만명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항공기 1대 운영 시 직접 고용 100명, 간접고용 600명, 파생고용 3,000명 등 3,700개의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의경 대신대 교수는 항공기 10대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관광지출액 2조31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4,603억원, 지역경제 기여효과 3조4,922억원으로 분석했다. 특히, 강원도와 설악권의 관광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하며 양

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춘천시의 레고랜드사업 등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군은 플라이강원의 항공운항증명 신청에 발맞춰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서핑을 비롯한 관광 산업화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등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내수 수요 창출 기반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플라이강원이 우리 양양군은 물론 설악권과 강원도를 아우르며 남북평화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기 부양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속 운영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의 대외정책과 공항지원담당 Tel. 033-670-2266

양양군 양양읍 시가지 도심 환경 크게 바뀐다



양양전통시장 인근 웰컴센터 조성 공사 막바지 총력

우리군 양양읍의 시내 중심부 및 양양전통시장을 포함한 양양읍 시가지 도심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양전통시장 인근에 조성해온 웰컴센터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2017년 8월 착공에 들어간 웰컴센터는 나들장과 푸드코너, 작은영화관 등 경제·문화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4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일원 1,297㎡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490㎡ 규모의 문화·집회시설로 건립을 시작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절차 진행 중으로 내달에 bf 인증 승인과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다. 웰컴센터 1층에는 휴게실과 물품보관소가, 2층에는 나들장(농口특산물 판매)과 관광안내소가, 3층에는 대표소와 매점 등이 들어선다.

특히, 4층 공간에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 문화체육관광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 상영관 2개관에 각각 59석과 38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이 설치되어 군민 문화향유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작은 영화관은 4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5월말부터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5층은 옥탑 공간으로 기계실과 헬룸 등이 설치되었으며, 4층에서 5층으로 오르는 계단장과 옥상 일부를 전망대로 조성해 남대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양양전통시장 인근에 조성된 웰컴센터는 준공 이후 주변 지역의 상권 개선과 평일 외출 허용된 군 장병들이 이용할 것으로 앞으로 주민 복지와 경제 선순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문의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담당 Tel. 033-670-2955



양양로 환경개선 지중화 사업 및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 공사 기간 통행 제한 협조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연어나들목) 사업

지난 3월 18일부터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양양로 환경개선 지중화사업과 남대천차량접근성 개선(연어나들목)사업에 들어갔다.

전선 지중화사업이 추진되는 군청사거리~남문3리 마을회관 구간은 전통시장과 인접한 남문리 중심가로 전통시장 및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어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어 온 지역이다.

우리군은 사업비 26억원(군비 13억, 한전부담금 13억)을 투입하여 이달 18일부터 10월 말까지 군청사거리~남문3리 마을회관까지 0.45km 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굴착 및 관로공사를 진행해 8월중 전주를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구간에 좌우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고압선 및 통신선 관로 매설을 위한 차도 굴착으로 인해 유동 인구 및 차량 통행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운송 및 여객 업체 운행노선 조정을 위한 버스 업체 협조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 일원에 사업비 7억 7천 여만원을 들여 보행자 통로 및 수문을 설치하는 연어나들목 설치 공사를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양양시장의 경우 지난 1986년 건축된 시장상가를 중심으로 64개 점포가 상시 운영돼 하루 1,200여명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평균 2만 명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복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양양 시가지 자체가 워낙 협소한데다 지난 2010년 개설된 55면 규모의 주차장 외에는 시장 인근에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 대다수 방문객이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남대천 둔치 임시주차장에 주차 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둔치 도로를

횡단하는 이용객과 차량이 뒤엉켜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방문객들이 남대천 둔치 도로를 횡단할 필요 없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대천 둔치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제방 사이에 보행자 통로와 수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3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통로박스 작업 기간 동안 제방 도로의 차량통행이 불가하며 둔치 운동장 부근의 별도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제방도로 주변 행사 및 전통시장 운영 시에도 일정 부분 불편을 감안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연어나들목 조성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양양 시내 중심부 도심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통행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사 기간 동안 주민 및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문의 대외정책과 전략사업담당 Tel. 033-670-2287



양양로 지중화사업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 청곡리 구간 250m 4차선 확포장

우리군은 이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 청곡리 250m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간다.

이 지역은 기존 청곡리 주민뿐만 아니라 최근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이편한세상 아파트, 한양수자인 아파트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입주민과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차량 통행이 크게 증가한 곳이다.

특히 종합운동장에서는 도 단위 체육 경기와 각종 행사가 수시로 개최되는 곳으로 타 지역 방문객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국도44호선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직전까지는 4차선으로 이어져있으나, 이편한아파트 진입로에서 청곡리로 들어가는 250m 구간이 현재 폭 15m 도로로 협소한 상태에서 앞으로 수시로 있을 대규모 체육 행사와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민이 더 늘어날 경우 주민 불편 및 도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군은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2월 중순부터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청곡리 구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지고 있다.

8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도44호선에서 청곡리 구간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진·출입은 물론 체육시설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Tel. 033-670-2160

양양군, 무단 점유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실시

자진철거 이행 각서 제출로 일단락

우리군은 지난 2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에 대한 대집행에 나섰다.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는 양양군 공유재산인 현남면 광진리 244-15번지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과 10월에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어촌계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목적외 사용을 하면서 군에서는 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대집행 계고에 이어 4차에 걸친 대집행영장 통지에도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날 최종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대집행을 위해 군청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등 40여명을 구성해 광진리 어촌계를 방문, 무단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려 했으나, 무단점유자 측에서 자진철거 의사를 표시하고 군에 이행 각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 2017년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5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킨 바 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유재산 내의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해갈 방침이다.

문의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Tel. 033-670-2140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양양향교에서 봉행된 춘기석전제(3.11)
2. 농업이 미래다~!! 2019년 양양농업대학 입학식(3.7)
3. 양양군 여성회관 교육강좌가 개강하였습니다~!!
4. 연어가 다시 만나자, 양양 남대천에서 이루어진 어린 연어방류행사(3.20)
5. 양양농업기술센터가 자체 육성한 오로간자 파종 시연회(3.19)
6. 보건소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걱정 뚫~!
7. 학교주변에서는 천천히, 아이들을 위해 안전운전하세요~!(3.20)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사업과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양양군 장기미

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청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제권고안을 오는 6월 5일까지 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의원, 간사 이종석 의원)를 구성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임시회 기간 동안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13건의 조례안 심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는 3월 19일 위원회를 열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조례안(제정 4건, 개정 9건)을 심사했다.

의원들은「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많은 마을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제정과 관련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점검하고, 각종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총 13건의 조례

안 중 「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화관 개관일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고, 휴관일 공지를



기존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양양군 홈페이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3월 18일 의장실에서 제239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8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박봉균 의원, 김기승, 전창환 氏 등 3명이 선임됐다.

고제철 의장은 “양양군민이 준 소중한 권리로 양양군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셨다”며, “양양군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낭비 사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양양군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감사의 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양양군수는 결산검사위원이 작



성 제출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의 최적지, 양양에서 살립니다.

올해로 귀농한 지 만 4년이 되는 공도영 씨는 은퇴 후 나무가꾸는 일을 해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임업 체험교육을 받던 중에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새 4년 차 표고버섯 재배 농업인이 되었지만 농부 티가 나는가 싶다가도,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서울에서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2016년 아내의 고향인 양양으로 내려와 현남면에 터를 잡은 공도영 씨는 좋아하는 나무를 다루고 표고농사를 짓고 있으니, 이만하면 인생이모작을 성공한 거 아니냐고 말한다.

“일 년에 하나씩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 첫 해에 굴삭기 면허증을 따는 것으로 시작해 올해는 숲 해설가 공부도 할 겁니다. 농사도 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지금 생활이 참 좋습니다.”

공도영 씨를 성공적인 귀농사례로 손꼽을만한 이유가 있는

양양이 좋은 사람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날씨,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은 점 등이 양양으로 귀농하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요즘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소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귀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따로 있다. 적은 농지에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특화작목이나 느타리와 표고 등 버섯류를 선호하지만 재배만큼 중요한 판매에 대한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기도 한다.

양양 귀농 인구는 2010년에 32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귀농 4년차 공도영씨

것 같다. 모든 귀농귀촌이 이처럼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근 양양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좋은 곳이라고 입을 모은다.

7~80명이 귀농해 정착하고 있는데, SNS 활동 등으로 농사에 대한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하며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귀촌귀농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 지원정책과, 토지/주택 정보, 교육정보, 양양소식 등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귀농·귀촌 체험교육



귀농·귀촌 체험교육

귀농귀촌, 미리 체험하세요.

귀농귀촌의 성공은 최소 5년을 기점으로 한다. 귀농해 농사를 짓고 농가 소득이 발생해 5년이 지나면 안정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한두해 반짝살이가 아니라 정착해 살기 위해서는 영농교육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이다.

양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제2의 삶을 위해 귀농귀촌 준비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매년 4월~6월에 1박2일로 귀농귀촌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 농가에서 영농기술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농가 현장실습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농촌 이주 시 정착에 필요한 농지, 주택 등 구입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2%)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사업

이 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양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T.033-670-2863 F.033-670-2759
<http://yyatc.yangyang.go.kr/gw/agriculture>



귀농인의 집

ISSUE & PEOPLE _ 양양 여성이장 최선남 · 진금수 · 송경례

마을 지킴이, 여성 이장 트리오를 만나다

양양군 6개 읍면 124개리 이장 가운데 단 3명의 여성 이장이 있다.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여성 이장은 또 다른 지역민들의 든든한 일꾼이다. 마을 어르신들의 일상을 함께 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여성 이장들의 활동이 섬세하고 눈부시다. 양양읍 남문3리 최선남 이장, 현북면 원일전리 진금수 이장, 현남면 입암리 송경례 여성이장 트리오를 만나다.



새내기 1년차 이장, 마을 주민들이 응원해 주시네요.



양양읍 남문3리 최선남 이장

양양읍 중심기인 남문 3리는 병원, 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올해 남문3리 이장을 맡은 최선남 이장은 지난 3월 마을 대청소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른 아침 마을 주민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대청소를 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고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단합한 것이 큰 보람이다. 새내기 이장의 첫 출발이 깨끗해진 마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활발한 성격의 최선남(54세) 이장은 24세 때부터 군□도□전국 단위의 각종 여성·일반 단체에서 실무자와 대표 등을 맡아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리고 마을일을 맡아달라는 주민들의 권유로 양양읍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이장이 되었다.

300여명의 주민이 거주 중인 남문 3리는 상가를 비롯하여 마을 곳곳을 잘 살피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어서 남문3리의 개

발위원, 부녀회, 반장 등 일선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협의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40년 마을 지킴이, 이장도 올해까지

현북면 원일전리 진금수(65세) 이장은 40여년간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전념해 말 그대로 밖에서 살았다. 양양군 생활개선회의 주요 직책과 도 부회장, 농촌지도자협의회 등을 맡았고, 2008년에 이장을 맡아 새농촌만들기 사업 등 굵직굵직한 일을 해 왔다. 2013년에 다시 이장을 맡아 마을 중심에 한옥 체험촌을 조성하여 많은 단체들의 하계 수련회 장소로 활용되는 등 마을 소득사업에 한 몫 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동네가 마을 사업 등으로 발전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하는 진금수 이장은 그동안 믿고 격려해준 주민들 덕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고맙다고 한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을 올해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마을일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이장을 그만두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라는 말이 와 닿는다.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현북면 원일전리 진금수 이장

뜨끈한 마을 목욕탕이 자랑이지요.

현남면 입암리 송경례(57세) 이장은 귀촌한 지 18년째로, 부녀회 일과 8년째 이장을 맡은 동네의 젊은 일꾼이다. 입암리는 87가구 130여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노인인구가 87명을 차지한다. 고령 인구가 많아 소득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 복지에 집중했다. 이장으로서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고, 꼼꼼하고 투명하게 마을의 살림을 일구는 것이 큰 보람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송경례 이장의 섬세함이 돋보인다. 막국수 마을로 유명한 입암리의 볼거리를 위해 마을길에 백일홍 나무를 심고 있는데, 꽃피는 입암리에 주민들의 함박웃음도 피어날 것을 기대한다.



현남면 입암리 송경례 이장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마을주민들을 위한 마을지킴이인 이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는 때, 양양군 여성이장 트리오의 세심한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의 섬김이로서 그들의 역할에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다.

〈글·사진 : 편집부〉

4월 4일 양양장날 만세운동과 함흥기 열사

1919년 4월 4일은 이석범李錫範 선생과 조화벽趙和璧 지사가 몰래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단초가 되어, 독립을 염원하는 지역 유림, 양양보통학교 동문, 양양감리교인 그리고 농민이 연합하여 양양면 남문리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다.



만세군중

양양 장날 만세운동이 시작되다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밤, 양양면 임천리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던 중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마을 책임자 22명이 체포되고 태극기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각 마을과 감리교회 책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므로 장날 만세운동에는 지장이 없었다.

일본 경찰은 4일 장을 철사하고 사전에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지만, 장으로 들어오는 다섯 개 통로로 각 마을 만세 군중은 베와 옥양목으로 만든 큰 태극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으며, 일부 장꾼들은 두루마기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동면 송현리 등 만세 군중이 먼저 들어와 시장과 경찰서가 내려다보이는 구교리 뒷산에 모여, 최인식과 김필선 등이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신호탄을 울렸다. 동쪽에서는 조산리와 사천리 군중이 청곡리 군중과 합세하여 들어오다가 연창리 대미소(현 터미널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였으나 계속 밀고 들어왔고, 남쪽에서는 함흥기 구장이 인솔하는 가평리와 손양면 군중이 함께 남대천 동운교(현 산림조합 옆) 앞에서 일경과 충돌하였고 또한 서면 상평리와 북평리도 박춘실과 노용수가 선두에 섰고, 용천리 군중은 노병례, 최선국이 큰 태극기를 높이 들고 들어왔으며, 임천리는 김명기와 최항식이 앞장섰고, 거마리는 김종태가 선두에서 태극기를 펼치며 만세운동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들어왔으며, 감곡리 군중은 북문을 통해 이관진, 이원도, 이원희 3부자가

앞장서 들어오다가 체포되었으나 계속하여 밀고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미 장을 보러 나온 장꾼들도 합세하여 11시 경에는 4천여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울분에 찬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수여리 고 이준재(이종우 선생의 부친) 옹의 증언에 의하면 “농사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논에서 일을 하는데 만세소리가 20여 리 떨어진 수여리까지 들려서 삽과 괭이를 버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한다.



옛 양양시장

일경의 칼에 양팔이 잘리며 항거한 함흥기 열사

만세 군중은 오후가 되자 경찰서 마당에 모여, 전날 임천리에서 체포한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손양면 가평리 구장 함흥기咸鴻基(당시 24세)는 경찰서장 실로 뛰어 들어가 항의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서장에게 화로火爐를 집어던지려 할 때 옆에 있던 사법 주임이 칼로 팔을 내리치고 허리를 찔렀다. 팔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계속 항거하다가 끝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어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權炳淵(당시 26세)도 항의하자 일본도에 목을 맞아 쓰러졌고, 밖에서는 격분한 군중들의 함성이 높아지면서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金鶴九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항의하다 일경이 연발총을 발사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때 가평리의 신영목, 북평리의 용조원과 이흥달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세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전국 3.1운동사에 양양의 함흥기 열사처럼 일경에 팔이 잘려 나가면서도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예는 없으며, 그 후 양양



함흥기, 권병연 추모비

의 3.1만세운동은 4월 9일까지 일주일 간 질서있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옛 사진



19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 환영행사 (강현면)

자연 속 봄을 느끼다!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양양의 체험마을

하나 둘 터져나는 꽃망울과 함께 봄이 성큼 다가왔다. 살랑 살랑 봄바람에 내마음도 두근두근 엉덩이는 들썩들썩,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푸릇푸릇한 봄을 한 몸 가득 느끼고 싶다면 지금 당장 떠나보자. 양양의 체험마을로..



해담마을 수륙양용차 체험

양양의 자연속에서 느끼는 오감 만족 프로그램_ 송천떡마을, 해담마을

자연속에서 오감체험을 하고 싶다면 송천떡마을로 떠나보자. 쿵덕쿵 떡메를 치고 조물조물 만듦다보면 어느새 쫄깃쫄깃한 떡이 한입가득 들어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반 떡들은 쌀가루를 뿜아 만들지만 송천떡은 쌀로 밥을 짓고 밥을 다시 떡메로 친다. 정성으로 치면 떡은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담백한 맛으로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체험하고 나오는 길 송천떡마을 입구에는 직접재배한 채소와 떡을 파는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좀 더 액티비티한 체험을 원한다면 해담마을 수륙양용차를 타고 숲을 달리고 물살을 가르며 시냇물을 건너보자. 여덟 개의 바위가 돌 언덕길을 달리며 빠른 속도로 급커브를 돌면 비명이 절로 난다. 하천에 진입한 다음부터 차는 쾌속정으로 변신하여 물살을 즐기며 숲을 누빌 수 있다.

수륙양용차를 타고 달리며 보는 숲은 마치 동화 속 나라에 들어온 듯 한 느낌을 준다. 한나절의 체험만으로 아쉽다면 양양 체험마을 방가로, 캠핑장 등 숙박시설에서 자연 속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이 봄을 즐기는 방법으로 추천해 본다.



재미와 체험이 가득한 바다여행 _ 수산어촌체험마을

이 봄 양양에 가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산 그리고 바다, 이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농촌체험마을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양양의 수산어촌 체험마을로 떠나보자. 바닷속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카누를 비롯한 물총놀이가 가능한 편보트,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요트승선과 선상낚시까지 다양한 바다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게다가 예약 후 방문하면 출출함을 달랠 수 있는 문어빵 만들기과 나만의 해초비누 만들기까지 재미와 체험이 가득한 바다여행을 할 수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즐기자~! 양양 체험마을

- 황릉마을 (양양군 서면 서림리, 033-671-5559)
· 짬뽕 공예체험, 다슬기잡기, 먹거리체험 등 / 황릉마을한옥체험관
- 달래촌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033-673-2201)
· 달래길 할링코스체험, 백선도 짬뽕방 / 달래촌 몸마음 치유센터
- 오색가마터 (양양군 서면 백암길 12, 033 672 5559) 도자기체험
- 해담마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110-17, 033-673-2233)
- 송천떡마을 (양양군 서면 떡마을길 107, 033-673-8977)
- 수산어촌체험마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길 20-16, 033-673-3677)

SNS속 양양 체험마을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군 서면, 용천리(龍泉里)

복사꽃 피는 마을
청년들은 아이디어로 뭉치다
주민들의 합창소리에 꽃이 피고 지고



용이 등천 한 마을 □ 용천리(龍泉里)



용천리 전경

마을 앞 우물에서 용(龍)이 등천(登天)하였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는 용천리(龍泉里)는 봄이면 복사꽃이 피고 과일향으로 달달한 마을이다. 남대천을 안고 있는 형상을 한 용천리는 마을 그대로 정원 같은 느낌이다. 용천리는 84가구 중에서 50여 가구가 과수 농가로 복숭아와 배, 자두 등을 생산해 양양군에서는 가장 많은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

양양군 특산품으로 손꼽는 낙산배는 물론이고 복숭아 자두 등을 생산하는데 입소문만으로도 널리 알려져 복숭아가 나는 계절에는 용천리 마을길이 과일시장처럼 붐빈다. 따로 판매장을 갖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대신 농가마다 찾아오는 사람들과 개별 주문으로 재배한 과일을 모두 판매하고 있으니 유명세가 남다른 것이다.

청년회, 적극적인 마케터로 나서다

최근 들어 마을에서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과수농가의 위기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과수농가가 급격히 늘면서 앞으로 용천리 복숭아의 홍보 판매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과수농가는 일반 농사보다 일손이 10배가 더 든다고 한다. 집집마다 과수농사만으로도 바쁜데 홍보와 판매까지 직접 해야 해서 어려움이 크다. 마을에서 따로 마을공동사업을 진

행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용천리 청년 농업인 8명으로 구성된 용천리 청년회가 낙산배와 복숭아를 활용해 젊은층을 공략할 디저트 신 메뉴를 개발하고 서울 혜화동 '마르쉐'를 비롯해 '비치마켓' 등에서 홍보 판매활동을 펼쳤다. 용천리 과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공동 판매장 등을 개설해 판매망을 구축한다면 농가소득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정착해 살아가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3년에 이어 2년 전부터 마을 지킴이로 활동하는 김종완 이장은 과수농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크다.

“공동 판매장을 개설해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다행히 청년회 등 젊은 농업인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젊은 마을, 잘사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결의해서 극복해 나가야죠.”



주민들 노랫소리에 꽃이 피고, 과일이 익는 마을

꽃이 피고 과일이 익어가는 용천리에서는 노랫소리와 웃음 소리도 피어난다. 주민들이 모여서 노래교실팀을 만들었는데 바쁜 일과를 마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저녁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른다. 84세의 어르신부터 젊은 새댁에 이르기까지 마을 여성들이 노래로 한마음이 되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용천리 대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장려상까지 받아서 마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바쁜 농사일에 취미활동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 노래교실을 꾸려가는 주민들은 서로 친밀해지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양 사람들 사이에서 ‘용천리는 부자마을’이라고 불린다. 부지런히



노래교실 팀

하루를 보내고 나서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노래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야말로 부자로 불리는 비결이 아닐까.

<글·사진 : 편집부>



새우인 듯 새우 아닌 새우 같은 '부새우' 꽃이 피었다면 양양의 4월 별미는 '부새우'라야 한다



겨울이 끝나고 이른 봄이 시작되는 꼭 이맘 때쯤이면 양양에 특별한 별미 한 가지가 절로 생겨난다. 누군가 씨앗을 뿌리지도, 재배를 하지도, 키우지도 않았는데, 한때는 그 별미에 장사꾼도 있었고, 추억도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 그 별미를 찾는 사람들은 알아도 예전처럼 잘 알지 못하는 귀한 양양의 토종 음식이다. 1970년 대 이 별미를 리어카나 함지박에 담아 골목마다 다니며 두부 팔 듯 외치며 팔기도 하였다. 꽃이피는 양양의 4월 별미 토종 바다새우 '부새우'를 소개한다.

잡을 수 없어 뜬다는 부새우의 실체

부새우는 곤쟁이의 일종으로 바닷물과 모래 땅 언저리가 맞닿는 모래 속 경계선에 정확하게 숨어 산다. 모래 색과 똑같은 보호색을 띠고 있으면서 길이 4mm 정도 크기 밖에 되지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맨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실제로 여간해서 채취하기 어려운 귀한 음식 재료다. 부새우 잡는 일에는 아주 특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모래땅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서나 서식하지 않으며, 있던 자리를 찾아 다음 날 가보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신묘한 부새우를 잡는 일에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파도 세기, 모래 불 경사각, 바닷물 내려가는 속도, 뜰채 각도 등의 눈썰미로 적당한 곳을 골라 채취하는데, 옛 사람들은 부새우를 '잡는다'고 하지 않고 '부새우 뜨러 간다'고 했다. 부새우의 이름은 본래

'불새우'로 '불'은 모래땅을 뜻하는 양양의 방언으로 '모래 속에 사는 새우'란 뜻으로, 부새우라고 불리게 된 것은 '물에 떠다니는 새우'라는 뜻의 '뜰 부(浮)'를 한자표기한 이후부터이다. 반원형으로 구부린 물푸레나무에 물이 잘 빠지는 광목이나 삼베로 덧대어 만든 뜰채로 부새우를 뜬다. 파도가 모래 불을 쓸러 내려 올 때 뜰채를 대면 모래 속에 있던 부새우가 모래와 함께 뜰채로 들어온다. 이렇게 등허리를 수십 번을 굽혀야 겨우 몇 사발 남짓한 부새우를 뜰 수 있는데, 여느 새우처럼 바로 먹을 수가 없다. 민물을 담은 넓은 대야에 잡아 온 부새우를 쏟아 붓고, 몇 십번의 조리질로 모래나 이물질을 떠내야 먹을 수 있다.



부새우 만한 감칠 맛 없어 별미 별식으로 대접

부새우는 비록 너무 작고 보잘 것 없어서인지 지역 사람들에게 조차 생소하지만, 오래 전부터 먹어왔던 양양의 토종 바다 새우이다. 부새우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문헌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양양에서는 한국전쟁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채취하여 먹었다고 한다.

한때는 부새우 한 사발에 쌀이나 콩 한 뒷박과 맛바꿔 먹을 만큼, 양양을 대표하던 감칠 맛 나는 별미 음식이었다. 그나마 모음식점에서 부새우를 부탁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가끔 장날에도 볼 수 있어 명맥이 아주 끊긴 것이 아닌 것만으로도 아직까지는 다행이지만, 간혹 동호리 해안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몇 분이 부새우를 뜨고 있는데, 이 귀한 풍경과 부새우 맛을 언제까지 볼 수 있게 될지 적잖이 아쉬운 양양의 별미이다.

초여름인 5~6월과 가을철인 9~11월이 제철로 손질한 부새우는 의외로 조리법이 다양하다.

고춧가루, 마늘, 파 등으로 버무려 곱삭한 '부새우 젓갈'이 대표 음식으로, 참기름에 비벼 따끈한 쌀밥에 올려 먹으면 달큰 하면서 깊은 감칠맛으로 아주 그만이다. 호박을 빻어 깔고 자박하게 끓인 '부새우 호박찌개'부터 부새우 계란찜은 물론이고, 부새우만 넣고 끓인 '부새우탕'도 빼놓을 수 없는 으뜸의 별미이다. 더욱이 가을철 부새우로 담근 김장은 잘 쉬지가 않



는다. 오랜 세월 양양의 토종 음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부새우'이다. 살다보니 어느덧 잊고 있던 봄의 입맛이라면 이번 봄의 별미는 '부새우'라야 한다.

〈글 · 사진 : 강원도외식저널대표 황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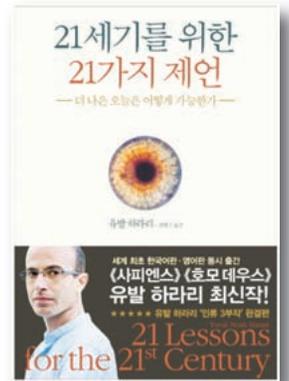
책 이야기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현재 인류는 과학 및 생명공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변혁의 시대’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혁의 시대’는 인류를 언제든지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적 현안들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인류가 선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개관하고, 2부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살펴봅니다. 3부에서는 테러리즘의 위협과 전 지구적 전쟁의 위협, 그리고 그런 분쟁을 촉발하는 편견과 증오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고, 4부에서는 탈진실 개념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까지 세계의 전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정의와 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고, 5부에서는 이 혼돈의 시대에 처한 우리의 삶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민족과 종교, 인종주의에 갇혀 반목하고 있는 인류의 오늘은 어떤 내일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즉, 저자는 ‘인류가 탄 지구호는 큰 파도에 맞서 돌진하고 있는 난파선 형국’이라는 인식 아래 인류는 스스로 위협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언합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혁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부 세계까지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생명을 설계하

고 만들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뇌를 설계하고 삶을 연장하고 우리의 생각도 임의로 죽이는 법까지 터득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언제나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발명하는 데 훨씬 뛰어났다. 강 상류에 댐을 지어 흐름을 조작하는 것은, 그것이 더 넓은 생태계에는 어떤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의 흐름을 바꿔놓는 일은 그것이 개인의 심리나 우리 사회 체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지하는 일보다 쉬울 것이다.』(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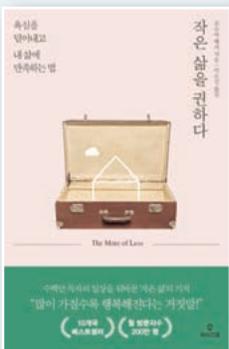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문학사상사, 2005
-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지음, 생각의길, 2013
-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지음, 시공사, 2019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작은 삶을 권하다

조슈아 베커 지음/ 와이즈맵 / 2018

“우리는 정말 더 갖지 못해 불행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 이 책의 저자인 조슈아 베커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는 집안 정리에 치여 아들과 놀아줄 시간조차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던 어느 날, ‘이 많은 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 없다.’는 이웃의 한 마디에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소장하던 물건을 버리고 기부하며 삶의 크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늘어난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봉사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작은 삶 운동’의 선도자인 저자가 자신이 겪은 변화와 깨달음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집필한 책입니다.



슬픔을 건너다

홍승연 지음 / 달그림 / 2018

이 책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상실감을 주제로 한 그림책입니다. 저자는 사람이 상실감이 라는 감정에 놓였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면서 보여 주며, 바닥으로 가라앉는 마음, 시린 상처, 막막함,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절망을 어둡고 차분한 색감과 조형적이면서도 공간미가 느껴지는 이미지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톤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변화가는 그림들은 이야기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그래도 삶은 살 만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수이엔씨	1명	배관공	08:00~18:00 (주5일)	연2,400만원이상 (경력자 협의)
오색산장	1명	건물관리원 (상주직원)	시간협의	연2,300만원
(주)매홍엘앤에프	2명	곡물가공 생산 및 기계조작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1명	마케팅광고·홍보사무원 (경력직)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1명	무역사무원(영어)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1명	생산 및 품질관리원 (경력직)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하늘과바다사이 cafe	1명	홀서빙 및 음료제조원	10:00~18:00 (주중2일 휴무)	시급 8,350원 (협의)
(주)두경건설	1명	건축기술자 (건축초급이상)	09:00~18:00 (주5일)	연3,300만원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연2,100만원이상 (협의)
(주)새서울레저 (설해원 골든비치)	1명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소지자)	08:00~18:00 (격주5일)	연3,000만원이상
	2명	전기·설비 시공기술자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08:00~18:00 (격주5일)	연3,000만원이상
영광전기(주)	2명	내선전기공 (경력직)	09:00~17:00 토요일 오전	월250만원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꿈을주는어린이집	1명	보조 보육교사	15:30~19:30 (주5일)	월 97만원
선영유통	1명	물품진열원	09:00~18:00 (주5일)	월175만원
(주)취찬 (낙산비치호텔)	1명	매장관리원 (사우나, 편의점 카운터)	06:00~15:00 13:00~22:00 (2교대, 주5일)	연봉 2,095만원
황리미유희회	1명	사무장	09:00~18:00 (주5일)	월175만원
대흥반점	1명	홀서빙원	12:00~14:00 17:00~20:30	시급1만원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오색그린아드호텔	1명	요가강사		연봉3,000만원
	1명	룸메이드	09:00~18:00 (주6일)	월175만원
	1명	특산품매장판매원		연봉2,10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3월 18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노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함께해요!

재활용보다 더 중요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플라스틱과의 착한 이별!

마트에서는...
- 옥비닐 사용하지 않기 (수분발생, 흙 등은 신문지 사용)
- 친환경마크 상품 구매하기

커피숍에서는...
- 패용 내에서는 피그립
- 내보내려는 개인 텀블러를
- 플라스틱 빨대는 제공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사무실에서는...
-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하기
- 회의, 행사시 1회용품 사용
피해하기

가정에서는...
- 불필요한 비닐 포장 제거하기
- 배달포장시 플라스틱 시기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 시장갈 때 크고 튼튼한 장바구니
꼭 챙기기!

친환경 생활 더하기 팁
-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세척 후 분리배출
- 물때, 소미줄이기
- 소파리함 등 과대포장상품 구매
자제하기
- 생매, 친환경 소재 제품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 외출 필수 아이템
주머니에 나만의 손수건은
어떨까요?

친환경 생활 더하기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요!

양양군

2019년 양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양양군수 (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95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7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88억원)보다 435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3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58%이며, 자체수입에 자부채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38%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전체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통합재정수지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 자체수입 증대 및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y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이기선(033-670-2110)

보건소 혈관백세 건강교실 운영

- 기 간 : 3월 ~ 10월
- 일 정 : 월 2회 둘째, 넷째 화요일 오전 10:30 ~ 11:30
- 장 소 : 보건소 다목적실
- 대 상 : 고혈압, 당뇨 질환자 및 관심 있는 지역주민
- 교육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교육, 식이관리, 신체활동(운동법), 심폐소생술
- 참여혜택 : 혈액검사, 골다공증검사, 장수사진촬영권 중 택1
- 교육문의 : 670-2871, 670-2543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 목표면적 : 132ha
- 사업비 : 472,600천원(국 378,080 · 도 28,356 · 군 66,164)
-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농지
 - '18년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농업경영체 정보등록 농지)
- 대상 농업인(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휴경' 신청시에는 최근 3년('16~'18)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작목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른 지원금 지원(평균 340만원/ha)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품목군별 지원단가

구분	조사료	일반·풋기름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단가 (만원/ha)	430	340	325	280	340

- 사업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19. 6. 28일까지
- 문의 : 기술지원과 작물환경 033-670-2439

디지털 사진 촬영 및 이미지 편집기술(포토샵) 특별강좌

- 교육일 : 2019. 4. 1. ~ 4. 26.(매주 화요일)
- 교육시간 : 18:00 ~ 21:00
- 장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 정보교실
- 교육인원 : 28명
- 접수일 : 2019. 3. 25. ~ 3. 29.
- 신청방법 (전 화) 033-670-2116
- (인터넷) www.yangyang.go.kr (양양군청 홈페이지)
- * 양양군청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 구분에서 [분야별정보] → [교육] → [교육신청]
- 교육내용
 - 디지털 사진 기초 - 카메라 촬영모드 이해
 - 디지털 이미지 작업 - 포토샵(풍경사진, 인물사진 편집)
- 준비물 : DSLR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
- 문의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033-670-2116)

2019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 참여대상
 -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중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 만 19세 ~ 65세 - 관내 거주자(직장 주소 포함)
- 참여인원 : 선착순 70명 □ 모집기간 : 4월 ~ 6월
- 신청 필수사항 : - 스마트폰 소지자
- 안드로이드용 4.4 킷킷이상, 블루투스 4.0, 버전 이상
- IOS용 : IOS 10.0이상(아이폰 50이상)
- 참여혜택
 - 모바일 앱을 통한 6개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1:1 건강 코칭 및 상담 - 모바일 앱 연동 스마트밴드 제공
 - 3회 무료 건강검사 제공 - 활동 및 개선 정도에 따라 기념품 지급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 033-670-2543

2019년 상반기 군민정보화 교육

월별	기 간	접수기간	교육 내용
4월	04.01. ~ 04.26. (월,수,금)	03.25. ~ 03.29.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인터넷활용
			(야간-초급) 스마트폰활용기초, SNS, 인터넷 활용
5월	05.07 ~ 05.31. (월,수,금)	04.29 ~ 05.03.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워드작성(한글)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편집 기술 블로그·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6월	06.3 ~ 06.28. (월,수,금)	05.27 ~ 05.31.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컴퓨터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편집 기술 블로그·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초급) 18:00~ 19:30 (중급) 19:30~21:00
- 신청방법 : ①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전 화 : 033-670-2116

만75세 어르신 치매조기선별 전수조사 안내

- 기 간 : 연중(3월~10월) 집중조사기간
- 대 상 : 만75세 어르신(1944년생)
- 장 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
- 문 의 :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033)670-2565, 2854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4.1~5.31

단속대상

- 산나물 산행 및 산나물, 산약초, 조경용 수목 굴·채취 행위
- 굴·채취허가 대상 외의 입목 손상 및 굴·채취
-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의 허가 여부
- 작업장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허가지 외 산림훼손
- 입산통제구역 내의 임산물 채취
-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공·사유림)
- 임산물 양여구역 외 채취 및 양여 임산물 종류 외 채취(국유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19. 4. 30.(화) 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강원도원 특별사업
2019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 **행복한 집**

2019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2019. 4. 1. ~ 5. 31.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전년도(2018년)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 그 외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지원내용 신혼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만원 ~ 12만원 차등지원



양양맛있는야시장 쉼터모집

2019. 3. 11.(화) ~ 4. 19.(금) 양양웰컴센터 입대

모집분야 특색역거리 / 농·특산물 공예품 및 체험프로그램	모집인원 총 40명	신청발표 2019년 4월 24일(수)
지원자격 [공회] 1순위: 양양주민 (농·특산물의 경우 양양군민에 한함) [특색역거리] 사업자등록 가능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양양전통시장 2층 양양농촌충심사업 현장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hiyangyang2019@naver.com	문의처 [현장지원센터] 033-673-3365 [지역활성화센터] 02-6357-8014

※ 자세한 내용은 양양농촌충심사업 홈페이지(www.wetax.co.kr)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log: naver.com/hiyangyang2019)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 김보인
명 김보인

-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동일합니다.
-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3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한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www.gov.kr)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과
KTX 양양역 유치
플라이강원 설립으로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고
군민 행복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Ya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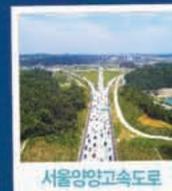
글로벌도시 양양,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플라이강원



동해북부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서핑